

2013. 5. 26
1974. 2. 15

六二五秘話

1950. P. 17) 비밀리에에 쓰인 이문연
P. 16) 4834 비밀리에 - 1967 → 비밀리에 (72 162),
P. 20-21) 21 비밀리에. (5109) 비밀리에 (foreign member, go. kt)

782426

이8-232-2168 (사단회)
0562-2652 (주)
12228

051-264-3002

비밀리에

비밀리에
051-243-0015

사단회

051-86-3557

비밀리에

268 비밀리에
051) 612-11045

04-390-4527
(211132)

社 團 自 由 評 論 社
法 人

북변리 박정순 055 864-3314, 11-884-0574 (863-0088) ^{퇴근}
 (216-3)
 22리 강사각 864-4112, 11-840-4112 (864-4469)
 (214-3)

(쌍(아))

죽음의 행진에서의 탈출

이동면 지서
 남해면 북변동

055
 (H) 860-3401
 3441

장진관

증언·발굴: 장진관
 (경남·남해군 남해면 북변동)

1950년, 그 당시 나는 경상남도 남해군(南海郡) 치안심판소장과 남해 동기소장을 겸하고 있었다.

치안심판소란 오늘날의 즉결 재판소같은 성격으로 남해군 관내의 경범죄나 오일 분자를 취급하기도 했다.

6월 25일 전쟁이 터지자 남해군내의 치안상태가 어수선하게 되었다.

적색분자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았다. 나도 다른 공무원처럼 몸을 피해야 겠다고 생각하고 이동면(二東面)에 있는 처가에 몸을 피했다.

9월 17일 새벽이었다. 하동을 장악한 피뢰군은 남해에 까지 건너왔다. 그 날 저녁이었다. 10여명의 적색분자(지방 빨갱이)가 처가집에 나타났다.

『장진관 여기 숨어 있지?』

『장진관은 내 사원데…… 오늘 아침에 떠났소!』

나를 찾아 온 놈중에서 우두머리 격인 한놈이 장인에게 물었다.

장인은 내가 없다고 대답했다.

『영감! 우리가 다 알고 왔소』

『글세! 왔다 갔다니까 그러네』

『이 영감이… 아직 맛을 못 보았나』

『아이구! 이놈들이 사람 친다』

놈들은 노인에게 사정없이 몽둥이질을 했다. 나는 숨어 있던 골방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이놈들아! 장진관이 여기 있다! 애꿎은 노인에게 매질하지 마라』

놈들은 나를 끌고 간 곳은 이동면 지서 차리었다. 지서에 들어섰다.

①

『이놈 장 진관이 잘 만났다! 이 반동새끼 죽어버린다』

『어이쿠』

한 젊은 놈이 불문곡절하고 몽둥이로 내리쳤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작년에 오
열분자로 잡혀와 나에게 심판을 받았던 자였다.

『야! 이 새끼야, 나는 오늘같은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오늘은
꼭 너를 때려서 죽이겠다. 그러나 맨승맨승한 정신으로는 죽일 수 없으니까 한잔
마시고 오겠다』

그 놈이 나가 버리자 지서의 책임자가 말했다.

『읍 내무서에서 꼭 당신을 데려 오라는데 저자가 저러니 우리도 야단ियो 눈에
안보이게 저기 저 화장실에 숨어요』

나는 화장실에 들어가 숨었다.

잠시후 그자가 나타났다.

『장 진관이 어디다 두었소? 당장 데려 죽어야겠소』

『아! 동무! 장 진관은 읍내 내무서에서 꼭 살려 데려오라는 명령이요』

그때에 읍내 내무서에서 무장한 내무서원 세 사람이 왔다.

『읍내 내무서에서 왔는데! 장 진관을 데려 가겠다』

읍내 내무서에서 왔다는 세 사람 덕으로 일단 맞아 죽는 것은 면했다.

전기줄로 내 손목을 묶고는 남해읍으로 끌고 갔다. 끌려 남해읍 입구에 오자 놈
들은 소리쳤다.

『장 진관! 너같은 악질반동은 개처럼 취급하겠다! 여기서 내무서까지는 네발로
기어서 가랏』

말을 마치자 총개머리판으로 사정없이 내리친다. 나는 아픔에 못이겨 기어갔다.
약 1키로의 거리를 기어가면서 나는 생각했다.

『죽일놈들! 사람을 개 취급하다니! 이것이 사람의 것이냐? 공산당이란 인간
이하의 짐승이구나』

② 남해 경찰서에 들어가니 무장한 복괴군이 우굴거리고 있었다. 여기서 복괴군 취
조관이란 자 앞으로 끌려갔다.

『에! 동무는 우리 동지들을 학대한 죄를 인정하시요! 자! 이 종이에 열살 때
부터 지금까지 동무가 해온 반동적 악행을 모두 적어내시오』

이때부터 마을 빨갱이들은 나를 사정없이 매질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여기서 놈

함에게 맞아 죽은 비운 유지가 10이명이나 된다고 했다.

나는 감방에 감금되었다. 남해 경찰서 감방에는 나처럼 잡혀 온 사람이 51명이
나 되었다. 밤마다 취조란 이름의 고문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놈들은 우리 51명을 끌어내어 선창가로 갔다.

선창가에는 발동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놈들은 우리를 배에 태우고 가서 바다에다 밀어넣어 죽일 작정이구나』

작은 발동선에 감시원까지 60여명이 타니 우리는 마치 짐짝처럼 되었다.

④ 배가 도착한 것은 삼천포였다. 삼천포 경찰서에서 이를 동안 감금되어 있
다 다시 진주로 향해 행군을 했다. 진주에 가자 우리들은 진주 형무소에 수감되
었다.

좁은 감방에는 사람이 꼭 차 있었다. 여기에는 서부, 경남 9개 시군에서 끌려온
소위 놈들이 말하는 반동분자로 꼭 차 있었다. 감방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다. 식
사는 하루에 주먹 반만한 보리밥 한덩어리가 전부였고 물을 사흘이 넘도록 주지 않
았다.

갈증에 못 이긴 수감자들이 자기 소변을 받아 마시는 비참한 광경까지 보였다.

『아! 이 지독한 놈들! 중죄인이라도 이렇게 다루지 않건만…… 이 무슨 짐승
같은 짓인가』

그런 어느날이었다. 감방문이 열리더니 복귀군 정규군 복장을 한 병사가 들어
왔다. 이상한 일이다. 저놈은 또 무슨 잘못이 있길래 감옥에 들어왔을까 하고 모두
이상한 눈으로 보았다.

『야! 이 간나아 반동 새끼들아! 쫄 보고 있어! 저리 비켜나라우! 나 좀 누워
야 겠으니제』

그 복귀 병사는 마치 상전처럼 굴었다.

놈들의 학대는 날마다 심해갔다. 그런 어느날 옆 감방에서 탈출 사건이 생겼다.

원래 진주 형무소의 간수를 하던 사람이 옆 감방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비밀 통
로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열두명의 수감자가 탈출을 했다. 그러나 담장밖에서 모두 잡히고 말았다.

『악— 으악—』

그날밤 밤이 새도록 비명이 들려왔다. 아침이 되어서 안 일이었다. 탈출하다 잡
힌 열두 사람을 모두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몹서리쳤다.

『저놈들은 인간이 아니다.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놈들이다. 사람이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다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감방문이 열렸다.

『장 진창 나와』

『네』

나는 벌떡 일어나 나갔다. 그때다.

『이 반동새끼야 장 진창은 나야』

며칠전에 들어왔던 피외 정규군 병사였다.

장 진창이라 부르는 것을 나는 내 이름 장 진관을 부르는 줄 착각을 한 것이다.

장 진창이란 이름의 복귀 병사는 석방이 되고 나는 남의 이름을 이용해서 도망갈려고 했다는 이유로 배를 맞았다.

놈들은 무엇이건 구실만 있으면 우리를 불러다 매질하는 것이다.

매를 맞고 끌려와 누웠는데 어제의 그 복귀 병사가 나를 찾아왔다.

『동무래, 그 나하고 이름이 비슷하더구먼! 공연히 나 때문에 매만 맞았지? 자 이것 먹어라』

그 녀석은 제법 인간답게 굴었다. 그후 장 진창이란 복귀 병사와 나는 가까워졌다. 그 병사는 자기의 과거를 나에게 말했다. 평양 출신으로 19세란 것이다.

12명을 이끄는 분대장이며 진동리 전투에서 국군과 교전할 때 명령없이 후퇴했다는 죄로 며칠동안 감방살이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과거 기독교 신자 집에서 태어났고 외아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말요, 이걸 절대 비밀인데 우리 인민군은 보급이 모자라서 더 진격을 못하고 있시오! 아마 먼지 얹아 후퇴를 할 모양인데…… 쫓쫓쫓 그때에는 동무들은 모조리 총살을 시키고 갈거외다. 그러나 너무 낙담은 마오. 내래 잘 주선힌 볼테니께』

나는 이때에 복귀 병사지만 역시 종교인은 어딘가 다른 곳이 있구나하는 것을 느꼈다.

『아! 저 어린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김 일성은 전쟁에 몰아 보내나?』

이렇게 생각하자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이 더욱 불탔다.

이곳에 끌려온지 17일째 되는 날이었다. 남해로 끌려 온 우리 51명이 불러 나

✓. 9/11 10.7.5.

갔다. 옮겨 간 곳은 진주 경찰서 자리였다. 우리를 재심한다는 것이다.

헛박에! 공간, 배진까지 해 가면서 취조를 했다. 소위 재심이란 것이다.

종일토록 재심조사를 받았다. (?)

그런 다음 열두명을 따로 불렀다.

『에! 동무들! 그 동안 수고 많았소, 가 보오다』

이상 야릇한 미소를 띠우며 석방이란 것이다.

『아! 꿈인가? 생신가?』

우리는 경찰서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때 무장 괴뢰군이 불렀다.

『동무들! 어디로 도망가는 거요?』

『도망이라니요. 우리는 석방된 사람이란 말이요!』

『이런... 동무들 머리가 돌았구만... 너희들 같은 악질반동을 누가 석방한다고 나
래!』

그때야 우리는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서 마당에는 수백명이 끌려와 있었다.

잠시후 수십명의 무장 괴뢰 여군이 도착하자 행군이 시작되었다.

고성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다.

(1724 23842 (1808 099))

『빨랑 빨랑 걸어라우 이 반동간나이 새끼들아』

어라

괴뢰군 여군들은 욕을 하며 우리를 재촉했다.

어 →

남자 괴뢰군보다 여자 괴뢰군이 더 악독하고 심하게 굴었다.

『이놈의 영감태기 일어났!』

노인이 지쳐 쓰러져도 여군들은 사정없이 발질질을 했다.

『아니 여자가 저럴 수가 있나?』

저 나이라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시집갈 준비를 하는 수줍은 처녀시절이 아닌가?

저런 처녀를 이토록 악독하게 만든 것이 누군가? 그렇게 생각하니 공산당이 얼

마나 무서운 존재들이냐 하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었다.

『아! 불쌍한 것들! 저것들에게도 자유가 뭔지를 알게 할 길은 없을까?』

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고성까지 가면 말이요! 거기서 다시 이북으로 끌고 간대요』

두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 나는 드디어 부모형제 처자식을 떠나 지옥으로 가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갑자기 한가지 결심을 했다.

『그래! 끌려가서 지옥같은 생활을 함께 아니라 여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탈출을 하자』

이때부터 내 머리에는 탈출이라는 두 글자밖에 없었다.

그러나 고성이 가까워지도록 그런 기회가 없었다.

감시하는 괴뢰 여병사가 남자가 소변하는 곳까지 쫓아와 총을 겨누며 감시를 하는 정도였기 때문이다. 멀리 고성이 보이는 산언덕에 왔을 때다

『타타탕! 씨웅— 씨웅—』

앗! 젓트기다. 아군의 젓트기가 기총소사를 시작했다.

우리를 감시하던 여군은 공습에 정신을 잃고 숨을 곳을 찾았다.

『이때다. 이때가 아니면 살길이 없다』

나는 산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저 반동 새끼가 도망간다! 서랏!』

『탕 탕 탕』

감시하던 괴뢰 여군들이 나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다.

그때 또 비행기가 와서 기총소사를 시작한다. 북괴군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이용해서 끌려가던 다른 사람도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의 공습, 땅에서는 괴뢰군의 총질.

마치 수라장 같이 되었다. 나는 산속 깊숙이 숨었다. 며칠 동안 무작정 숨어 있었다.

그런 어느날 산 아래길을 보니 못보던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지나갔다.

자세히 보니 영국군이였다.

『아! 나는 살았다! 아! 나는 자유를 다시 찾았다』

나는 외치며 산에서 뛰어 내려왔다. 나를 본 영국군은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착각을 했을 정도였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의해 독군에게 인계되고 다시 고향을 찾아왔다.

놈들에게 끌려 간 20여일만의 귀가였다.

아내도 아이들도 나를 잡고 통곡을 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온 기쁨이다.

나는 다시 살아 난 기쁨보다 무고하게 죽어간 한 감방의 사람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섰다. 아! 자유, 조국이 얼마나 고마운 이름이었던가! ※

아! 고향이구나
그새
02.03

10.1.21

이후 사랑해서
결혼했어?

<비매품>

六·二五秘話

印刷日字：1979年 6月 15日

發行日字：1979年 6月 25日

發行處：社團自由評論社
法人

사 서 합：서울중앙우체국 6856

전화 269-8740